

커튼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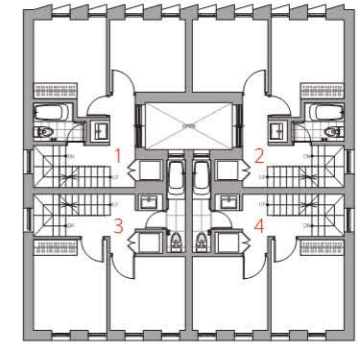
Curtain Call Apartments

설계자 _ Architect. 조병규 _ Cho, Byungkyu
 투닷 건축사사무소(주) _ TODOT Architects and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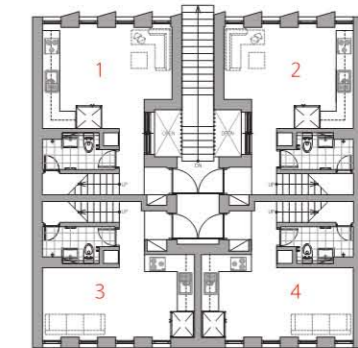
건축주 | 한민주
 감리자 | 조병규
 시공사 | (주)마루디자인건설
 설계팀 | 천철규, 소정호, 심건규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꽃내음1길 35
 주요용도 | 다가구주택(4가구),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230.70㎡
 건축면적 | 138.02㎡
 연면적 | 341.92㎡
 건폐율 | 59.83%
 용적률 | 148.21%
 규모 |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재 | STO외단열 시스템(기린건장)
 내부마감재 | 자작나무합판, 벽지, 강마루
 설계기간 | 2020. 02 - 2020. 07
 공사기간 | 2020. 08 - 2021. 02
 사진 | 최진보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델타구조
 - 기계설비분야 : (주)한빛안전기술단
 - 전기분야 : (주)천일엠이씨
 - 소방분야 : (주)천일엠이씨

Client | Han, Minju
 Supervisor | Cho, Byungkyu _ TODOT Architects and Partners
 Construction | Maru Design Construction
 Project team | Chris, Cheon / So, Jungho / Shim, Keonkyu
 Location | 35, Kkonnaeum 1-gil,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Korea
 Program | Café / Multi-family Housing
 Site area | 230.70㎡
 Building area | 138.02㎡
 Gross floor area | 341.92㎡
 Building to land ratio | 59.83%
 Floor area ratio | 148.21%
 Building scope | 3F
 Structure | RC
 Exterior finishing | STO external insulation system
 Interior finishing | Birch plywood, Wallpaper, Wood floor
 Design period | February, 2020 - July, 2020
 Construction period | August, 2020 - February, 2021
 Photograph | Choi, Jinbo
 Structural engineer | Delta Structure
 Mechanical engineer | Hanbit Safety Technology Group
 Electrical engineer | Chunil MEC
 Fire engineer | Chunil M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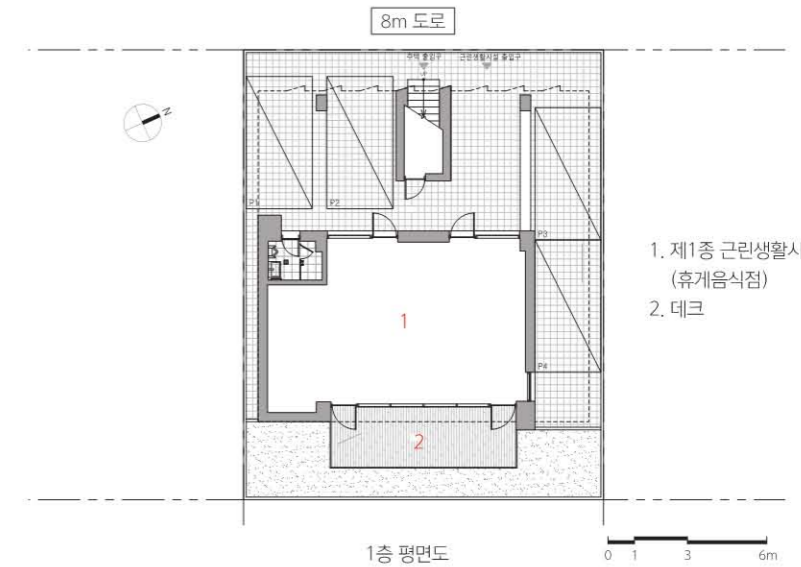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 A세대
2. B세대
3. C세대
4. D세대



2층 평면도

1. A세대
2. B세대
3. C세대
4. D세대



1층 평면도

1. 제1층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2. 테크

1년 전 도시계획가를 꿈꾸는 옛된 고3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투닥을 찾아왔다. 집 지을 곳과 그 집의 설계를 맡을 건축사 물색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왔던 아들의 열정과 지식은 나이로만 판단했던 끈대의 자세를 바로잡게 했고, 우리에게 좀 더 도전하기를 바라는 열린 마음에 큰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투닥이 그간 작업해 온 상가주택은 각각의 특수해를 품고 있다. 땅과 조건이 다르므로 그 해법들은 매번 다르게 나타난다. 상가의 구성, 집을 앉히고 쌓는 방법, 외부와 조우하는 방식 등 그 해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크고 작은, 전체와 부분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특수해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특하니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접근 방식에서 출발해 가급적 다양한 일반해를 만들고 그 장단점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해법을 찾는 것에서부터 계획은 시작된다. 많은 alt 중의 하나, 부적합한 것들을 배제하고 찾아낸 일반해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선택의 과정을 건축주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와 건축주의 관계는 더 탄탄해지게 된다. 신뢰의 집을 짓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것이다. 이렇게 찾은 일반해가 바탕이 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수해를 찾게 된다. 향동의 상가주택은 이런 우리의 원칙대로 시작되었다.

3층, 5가구라는 지구단위의 제약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일반해는 다음과 같다.

1. 엘리베이터를 배제할 것

- 3층이라는 규모에서 엘리베이터는 계곡과 같다.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이로 인해 거주 환경은 제약되고 사용 가능한 전용면적도 줄어들게 된다.

2. 4가구의 가구 구성

- 입지 조건, 지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3~4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3층 구성의 4가구로 가구 수를 결정하였다.

3. 연결 주차 방식은 가급적 지양

- 앞, 뒤로 연결하는 주차방식은 상가주택에서 흔히 보게 되는 주차 방식이다. 1층 상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선택하는 주차형식이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고 아파트와 비교해서 당장에 차이를 만드는 거주요건이기도 하다.

4. 주택이 우선이나 상가도 소외되지 않을 것

- 삼면이 집으로 둘러싸이고 겨우 한 면만 도로에 면한 상황에서 주택, 상가, 주차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내 집으로 가는 길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편리한 주차장이며, 상가는 마지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건축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정한 일반해가 상충되지 않고 상보적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수해로 접근했다.

1. Quadruplets

- 복층으로 구성된 네쌍둥이 같은 4가구를 계획하였다. 네 집 모두 2층에서 출입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배제가 합리적 선택지가 되었고, 모든 집이 다락과 옥상정원을 가질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위계를 지우고 동등한 거주 환경의 물리적 조건을 만족하게 했다.
- 모든 가구에게 분배된 다락은 여분의 공간이기보다는 3층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쓰이고, 옥상 정원은 주차장으로 점령된 1층 외부공간에 대한, 거주인을 위한 보상이다.

2. 커튼 같은 입면

- 큰 창을 내고선 그 앞에 다가서기 저어하는 마음에 커튼을 드리우고 뒤로 한편 물러서는 것이 상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거기에 깊숙하고 낮게 드리우는 서향 빛을 맞는다면 그 빛은 다만 피하고 싶은 조명이다.

연극이 끝나고 눈으로 쏟아지는 조명에 관객의 표정을 읽을 수 없는 난감함이 더해져 무대 뒤편으로 숨고 싶은 배우처럼, 스스로가 주인공인 집에서 쓸쓸히 퇴장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좁고 긴 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조명되고, 서향의 눈부심을 커튼처럼 굽어진 면으로 막아서고 그 창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입면 구성의 가장 큰 목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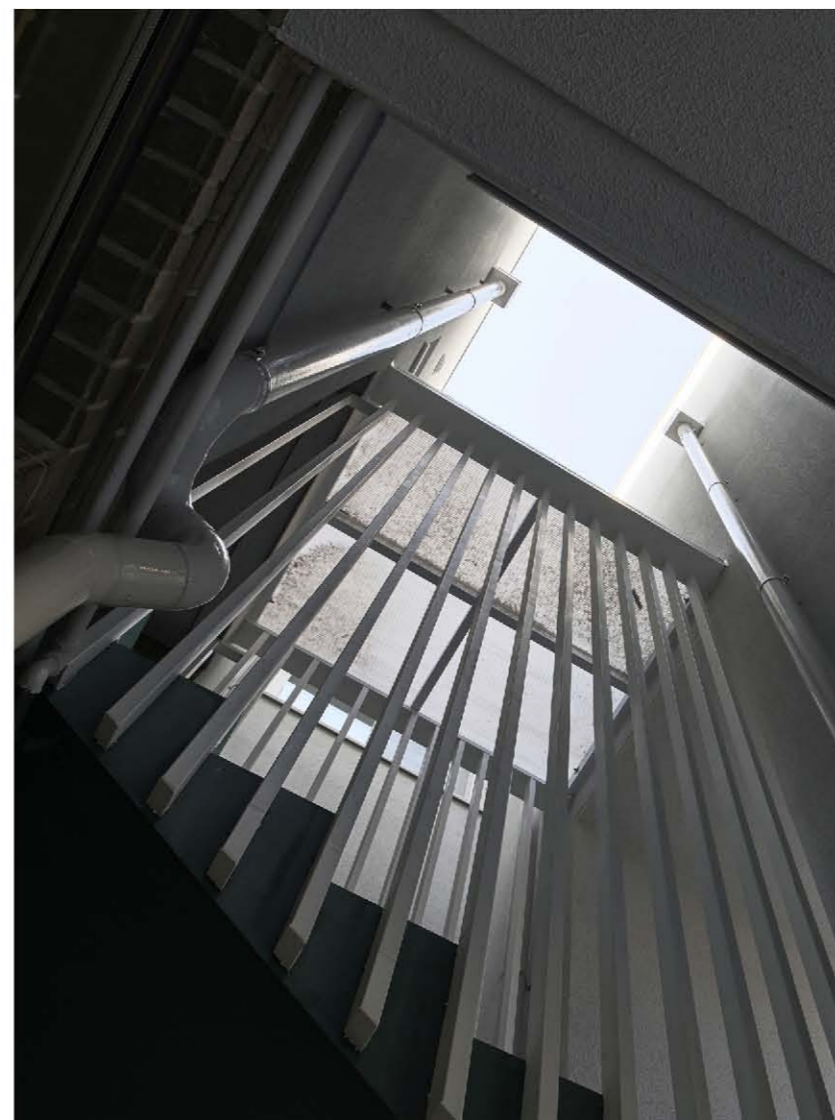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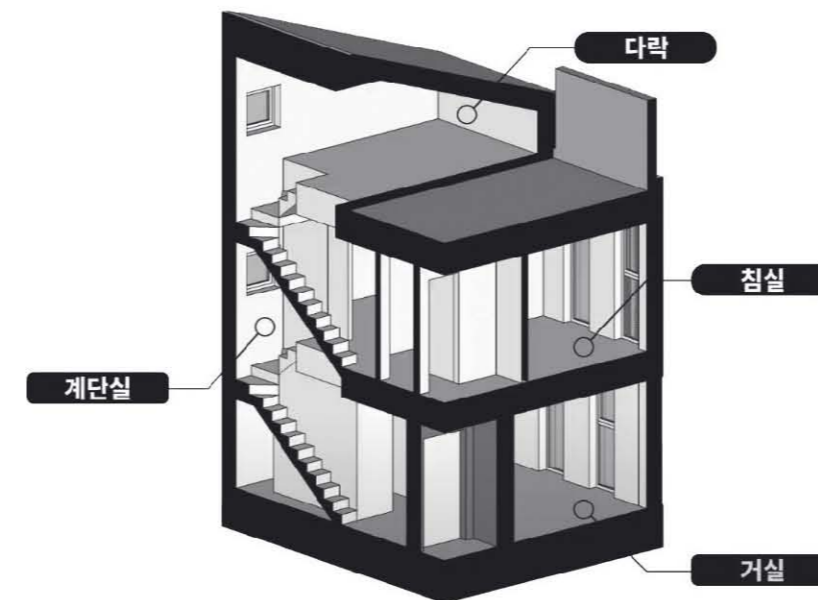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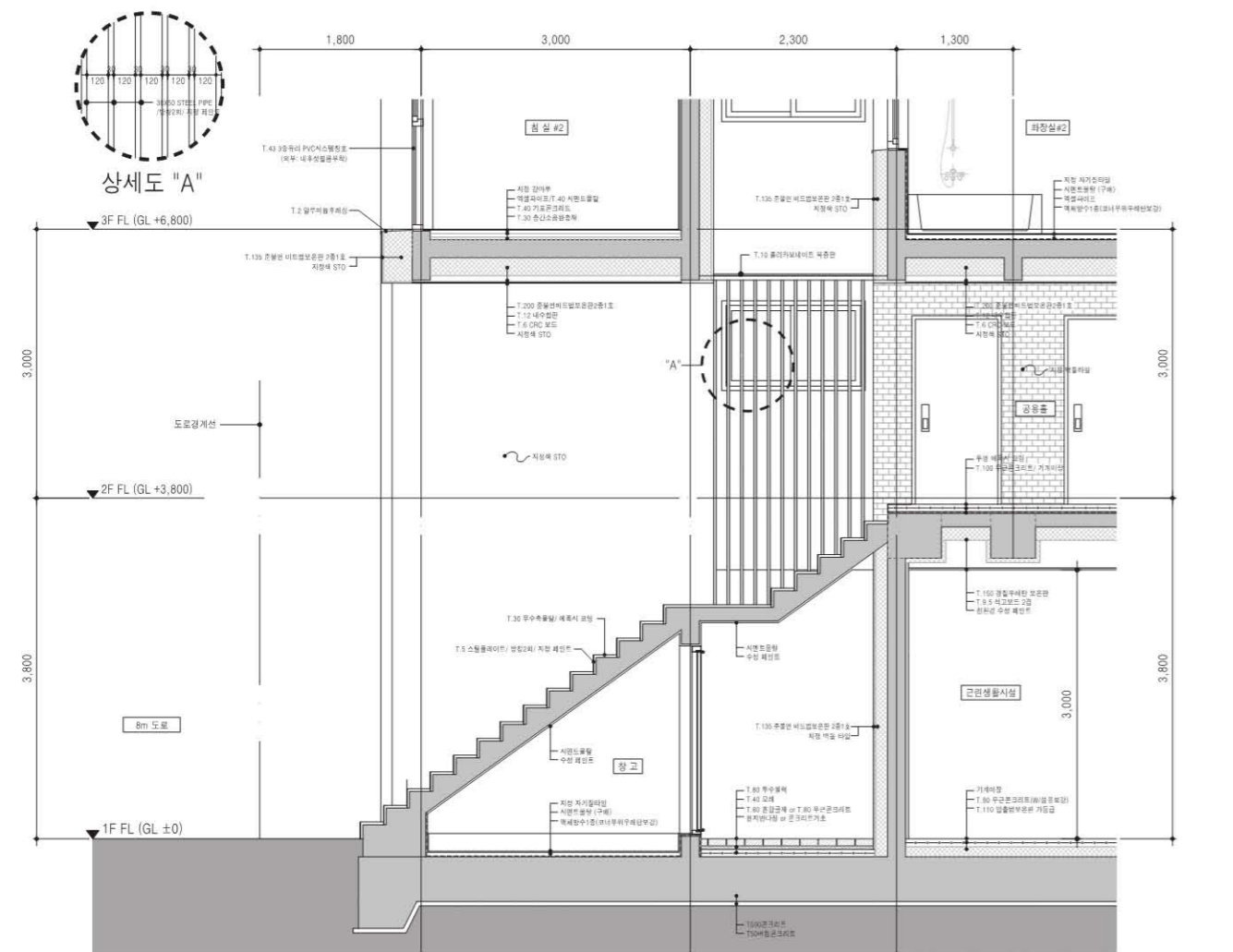
- 왕복 6차선의 메인도로보다 낮은 대지의 특성상 1층 상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 주택의 출입구와 주차장을 전면 내준 상황이라 상가의 존재, 입지는 상가 자체가 아닌 집 전체로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되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커튼 같은 입면이 자동차의 속도에서 인지되는 강한 인상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다.

건축주의 아들은 도시계획가의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오른다. 집을 떠나기 전, 집의 완성을 보고 잠시라도 살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다행스럽다. 건축주의 아들과 집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의외의 공간에서 만족을 드러냈다. 뒤로 물러서있는 상가와 도로 사이에 만든 콘크리트 벤치는 동네 주민의 마실 터로 쓰이길 기대하고 만든 이스터에그 같은 것이었는데, 삼삼오오 모이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부모님의 저녁이 적적하지 않겠다는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어리지만 넉넉한 마음의 예비 도시계획가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

1. 북쪽에서 바라본 전면 2. 드론 사진
3. 1층 상가 4. B가구 2층 주방과 거실 5. A가구 옥상



Detail _ 공용계단





3



4



5

The White Curtain Reveals Its Presence in the City

The site is surrounded by neighboring buildings on three sides and only one side is revealed towards the road. We designed a building that reveals its presence as a white curtain in the urban setting. Within the building, a café and multi-family housing coexist, and inevitably, hierarchy of lessor and lessee is created. By incorporating a white-curtain-like façade, we tried to alleviate the spatial and visual hierarchies to express a welcoming gesture to visitors and residents.

Composition of Four Units.

Within the constraints of the district zoning plan, we decided to plan a café on the ground floor and four residential units with two bedrooms that extend from the first floor to the attic.

Curtain-like Façade

The main objectives of the façade were that narrow and long windows illuminates individual's life and that tilted elements alleviate the glare from the West side enabling the residents take a step closer to the windows.

Concerns for Equality

In a project with three floors, an elevator becomes a "white elephant". It is an obviously convenient option but residential space would be limited and

leasable area would shrink. Therefore, the project is planned in such a way that every resident enters one's unit on the first floor after climbing the common central stairs from the ground floor.

Four Maisonette Units that Resemble Quadruplets

In the Maisonette composition, all four families can have an attic and a rooftop garden, removing the hierarchy of the lessor and the lessees and satisfying the physical conditions for an equal living environment. Especially, attics play a role as a third bedroom rather than an extra room and roof gardens are a kind of compensation for the ground floor outdoor space occupied by the parking lot.

Coexistence of the Café and the Residences

In a site surrounded by neighboring buildings on three sides, it is almost impossible to satisfy all of the programs and parking. In a typical design process, the primary program housing would come first followed by convenient parking layout and a café. We, nevertheless, came up with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onstraints. The white curtain catches passersby's attention and the small front yard and a concrete bench for the public is designed for the café placed sitting further from the street. We imagined that it would become a small gathering space for group of local residents